기획

# ‘온라인 혐오 표현’… 중국인 유학생에게도 번졌다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안테아(Hospitality 경영학 2018) 씨는 최근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안 씨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를 쳐다보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낀다”며 “친구들과 있을 때를 제외하곤 되도록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홍택군(한국어학 2017) 씨 역시 “중국인 유학생을 혐오하는 글을 보곤 현실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다”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에서 관련 게시글을 자주 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서슴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지난달 11일 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게 인종차별이고 두 번째는 중국인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67개의 ‘좋아요’와 함께 “너무 웃기다”,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온라인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연웅(철학 2015) 씨는 “일부 사례를 가지고 중국인 전체로 일반화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러한 혐오 표현이 사회 속에서 한 번 사용되기 시작하면 다시금 바로 잡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학생은 ‘에브리타임’을 통해 “혐오성 게시글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는 학내 커뮤니티의 현 상황이 당혹스럽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101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부분 이것이 정당한 혐오라는 반응이었다. “미세먼지나 황사 등 짱깨들에 대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이게 차별이면 나는 차별주의자로 살겠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면서도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로 여기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혐오의 한 갈래인 증오는 우월적 지위를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능력주의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인해 오히려 약자를 향해 증오가 표출되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피해 학생을 원인 유발자로 여기게 되면서 혐오가 정당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다.

> 학내 혐오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적 규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

『화교가 없는 나라』를 펴낸 인천대 이정희(동양사학) 교수는 “이러한 혐오 표현 사용은 한-중 학생 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내 한국인 학생이 중국인 유학생과의 갈등으로 생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인 유학생이 혐오 표현 사용의 원인 유발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 교양 수업을 들었던 A 씨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중국인 유학생이 단톡방 메세지도 읽지 않는 등 전혀 참여하지 않아 결국 발표 PPT에서 이름을 제외시킨 적이 있었다”며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프리라이더’(free rider, 팀 프로젝트 진행 시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라는 편견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B 씨는 “중국인들은 고집이 세고 시끄럽기 때문에 함께 다니기 싫다는 편견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생각들에서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혐오 표현 사용이 실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혐오 현상을 다룬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인 숙명여대 홍성수(법과대학) 교수는 “혐오의 단계는 ‘편견 → 혐오 표현 → 차별 → 증오 범죄 → 홀로코스트’의 순서로 이어진다”며 “에브리타임에 혐오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편견이 이어져 혐오 표현이 직접적으로 발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계를 내버려두면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이것이 점차 심해지면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혐오 표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 발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표현을 제재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규범을 형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며 “혐오 표현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공동체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칙 제 70조는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행위 등으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센터 송기휴 행정계장은 “현행 학칙상 혐오 표현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혐오 표현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의 피해가 커지면 학교에서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도 심각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내 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교의 우선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적 규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학 내 인권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인권 보장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홍익대는 학내 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학생회 내 ‘인권연대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 이상현(컴퓨터공학 2016) 국장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기구”라며 “실제 혐오 범죄가 발생할 경우 성인권위원회, 학교 측과 함께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역시 학내 혐오 현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차별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 교육부 김채윤 전문위원은 “언어 감수성이나 공동체 질서 회복 등 학내 인권 교육 전반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인권센터의 설립이 5달 가량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인력 수급 문제다. 미래정책원 정민섭 팀장은 “내년도 학교 전체의 예산, 인력 수급 계획과 아울러 인권센터 설립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센터 출범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정도는 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 개최 안내

경희기록관에서는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가.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 관련 역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부서 및 개인

나. 대상 기록물 :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 | |
|---|---|
| 문서류 | 공문서, 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각종 증서, 강의노트, 서적 등 |
| 시청각자료 | 사진, 필름, 슬라이드, 음반, CD, 비디오테이프 등 |
| 박물류 | 뱃지, 상패, 행사기념품, 우승컵, 우승기, 패넌트, 의류 등 |

다.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2월 7일(금) 18:00 마감

라. 기록물 접수처 : 경희기록관 사무실(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406호)

마. 우수 기증자 시상

1)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12월 21일(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2) 시상 : 수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3) 시상 내역

- 대상 (1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수상 (5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자 전원: 경희기록관 기념품

바. 기타

1) 공모전에 제출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경희기록관에서 영구보존

2) 개인 또는 단체(기관, 부서, 동아리 등) 응모 가능

3) 사진파일 등 전자기록물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 문의처 참조

4)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행정문서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적극 환영

사. 문의처 : 중앙도서관 경희기록관 02)961-0759 / e-mail: archives@khu.ac.kr

경희기록관